

완도 청산도 상서마을 올해 '최고의 명품마을'에



완도 청산도 상서마을.



신안 흑산면 영산도.

환경부 '국립공원 명품마을' 평가 광주·전남 4곳 1~4위 신안 영산도·진도 관매도 2·3위 광주 무등산 평촌마을도 4위 올라

국립공원 내 명품마을 지정·운영 5년차를 맞아 환경부가 진행한 평가에서 완도 청산도의 '상서마을'과 신안 흑산도의 '영산도' 등 전남지역 명품마을이 전체 10곳 가운데 1~4위를 휩쓸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국립공원 내에 있는 10개의 명품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4 명품마을 평가'에서 완도 청산도의 '상서마을'(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1위를 차지했다.

슬로시티로 잘 알려진 청산도 '상서마을'은 다랭이논, 구들장 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지난 2011년 환경부에 의해 명품마을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평가에서 '상서마을'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합심해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고사리 수확 체험장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전남지역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명품마을인 ▲신안 '영산도'(2위) ▲진도 '관매도'(3위)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12년 명품마을로 지정된 영산도 명품마을은 슬로푸드 가계를 조성해 마을 공동 수익을 창출하고 '할매들 손으로 만든 부뚜막 정식'을 개발하는 등 흑산도 부속 도서의 특성을 잘 이용해 명품마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매도는 지난 2010년 국내 최초의 명품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박나무가 자생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여 매기, 관매 8경 등으로 일반에 잘 알려져 있다. 이곳 명품마을 주민들은 친환경 탐방로를 개설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에 나서 관광객을 유치,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등 명품마을 지정 취지를 잘 살려 마을을 잘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도시 속 농촌 체험을 브랜드로 내세운 무등산 평촌마을(4위)은 도심권(광주 북구 충효동) 제 1호 명품마을로 지난 2013년 지정, 운영에 들어갔다. 평촌 명품마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명품마을 운영규칙을 제정해 강화된 주민 결속을 통해 도에공방을 만들고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연간 17회에 달하는 생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명품마을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골매 명품마을(충북 제천) ▲내도 명품마을(경남 거제) ▲함곡 명품마을(경남 거제) ▲신선 명품마을(전북 무주) ▲죽령 명품마을(충북 단양) 등이 6~10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명품 마을 10곳을 대상으로 ▲공동 소득창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분야 ▲주민 만족도 등 4개 분야 18개 항목에서 4~10점씩 평가한 점수를 합쳐 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진도 조도면 관매도.



광주 무등산 평촌마을.

백사장서 자라는 버섯 국내 첫 발견

국립공원연구원, 백사장 눈물버섯·모래선녀버섯 등 2종

숲 속의 축축한 바닥이나 썩은 나뭇가지에서 서식하는 대부분의 버섯과 달리 백사장에서 자라는 버섯이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가 백사장에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버섯 2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4월 태안해안국립공원 신두리와 기지포, 청포대, 바람 아래 해변 등지에서 눈물

버섯속인 백사장눈물버섯과 선녀버섯속인 모래선녀버섯을 발견했다.

가칭 백사장눈물버섯(학명 Psathyrella ammophila)은 '부서지기 쉽고 모래를 좋아한다'는 뜻이 있으며, 모래 속 깊이 박힌 보리사초, 갯쇠보리, 통보리사초와 같은 사초과나 벼과 식물의 썩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는다.

버섯 갯 크기는 5cm 이하며 해안가에서 단독 또는 삼삼오오 무리지어 자생한다.



백사장눈물버섯

가칭 모래선녀버섯(학명 Marasmiellus mesosprus)은 해안가 백사장에서 서식하는 사초(莎草) 식물의 줄기나 뿌리 부근에 매달려 자란다. 아름다움 이름과 달리 영양분을 흡수해 사초 식물을 말라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조만간 이들 버섯을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고 공식적인 한국 이름을 부



모래선녀버섯

여할 예정이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만1000여 종만 발견된 상황"이라며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국가 간 생물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발견은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무등산 탐방로 물놀이·야영행위 자제 당부

공원사무소, 17일까지 단속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탐방객 급증 기간을 맞아 무등산국립공원 이용시 지켜야 할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일 탐방객 급증으로 공원이 훼손되거나 다른 탐방객에게 불편감을 줄 우려가 생기는 만큼 계곡 이용시 지나친 물놀이, 흡연, 취사행위 등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무등산사무소는 주요 계곡이 일부 탐방객들에게 유원지로 잘못 인식된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 알리고 계곡 생태계 보호를 위해 17일까지 주·야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등산사무소는 또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오거나 천막, 그늘막, 텐트 등의 야영행위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무등산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탐방이 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은 이날 꼬막제 등 약속수가 폐쇄되는 등 도립공원 시설보다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광주일보 지적과 관련, 국립공원 내 약속터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폐쇄·관리하며 취수원 고갈로 광주시가 폐쇄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